

“종단-사찰 상생위해 유휴 토지 활용해야”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연구발표회
수익사업 대안...4가지 사례 제시

전국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활용해 종단 수익사업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정책연구기관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가섭스님)는 지난 17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사찰 유휴 토지 활용방안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연구소는 “현재 종단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임야, 종교용지, 전, 답, 대지 등을 포함해 5억8000여만㎡에 이르는 방대한 수준이지만 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종단의 큰 강점이기도 한 유휴 토지를 활용해 종단과 사찰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종단의 분담금 수입이 10여 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160억원 내외 규모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선사찰의 재정구조 또한 전통적인 기도사찰로서의 수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현 노년층이 감소하는 가까운 미래에 사찰의 주요 세입원 역시 급격한 감소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종단 집행부와 일선사찰 모두 실질적인 가용재원 감소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종단의 수익사업들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바

람직한 수익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검토 절차의 미비, 사업 전문성의 미확보, 사업 부담이 사찰에 전가되는 사업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종단과 사찰이 공동 참여하고 발생한 이익 또한 공동 배분하는 방식의 쌍방향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향후 종단 수익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연구소가 유휴 토지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사업모델은 수목장, 자연휴양림, 주말농장·오토캠핑장, 태양광 발전 등 크게 4가지. 연구소는 사찰이 수목장을 운영했을 때 최대 2년 내 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자연휴양림 운영 또한 사업 4~5년차 사이에 초기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야가 아닌 평지 지형의 유휴 토지에 주말농장을 조성한다면 초기비용으로 비교적 소액을 지출하는 대신 연간 순수의 규모가 작고, 오토캠핑장은 큰 액수의 초기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연간 수익의 폭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 가섭스님은 “이들 사업 모델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종단과 본사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19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불교계 성원에 대한 인사를 건넸다. 조희연 당선인의 총무원 방문은 예비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교육 활성화 등 교육문제 해결 약속”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9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예방을 받고 환답을 나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시작이 어려웠음에도 열심히 선거에 임해 역전으로 당선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앞으로 교육감으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희연 당선인은 “선거 전 예비후보 시절 총무원장 스

님을 예방해 많은 힘을 얻었고, 불교계에서 성원에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학생 때 당시 감사였던 조희연 당선인의 정치학 강의를 들었던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당선인께서 앞으로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공교육 활성화 등 많은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당선인은 앞서 지난 5월14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신분으로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교육감이 되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 외고 등 특권학교가 아닌 일반고 학생들도 서울의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일갑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기획국장 남전스님, 정우식 전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배석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눈에 띄는 교육원 인증연수

전승원 예수재 이문실기
헤거스님 ‘영가집 특강’
교육 이수자 30점 부여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에 새로운 과목들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원장 동주스님)의 생전예수재에 대한 이론실기 교육과 서울 금강선원장 헤거스님의 <영가집> 특강이다.

전승원은 오는 7월10일부터 3주간 목요일 오후1시 서울 흥원사에서 ‘알기 쉬운 생전예수재의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생전예수재는 자기 자신이 전생에 진 빚을 미리 갚고 재를 올리는 것으로, 윤달이면 여러 사찰에서 봉행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생전예수재란 무엇이고, 단 차림의 의미를 해석하는 강의와 함께 대령, 관육, 예수재, 사자단 의식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강의는 조계종 영불교육지도위원 정오스님과 불찬범음연구소 소

장 해일스님이 맡는다. 교육대상은 조계종 스님들이며 12시간 이수 시 교육원 연수교육 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헤거스님의 <영가집> 특강도 개설된다. 종단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강의는 오는 8월 21일부터 9월25일까지 총 6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6시부터 세 시간 동안 금강선원에서 진행된다. 이수 시 교육원 연수교육 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영가집>은 당나라 영가현각스님이 지은 책으로 <선종영가집> 또는 <영가선종집>이라고도 한다. 정(定)에 들 때 주의할 것과 수행하는 과정을 적은 책이다. 금강선원은 “영가집은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바른 수행법이 잘 정리돼 있는 불교 개론서로 한문경전의 문리를 돕는 탁월한 논서”라며 “헤거스님의 명쾌하고 깊이 있는 해설로 풀어나갈 영가집 특강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kjo@ibulgyo.com



지난 1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원경스님(오른쪽)과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왼쪽)이 난치병 어린이 환우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3000배 정진의 결실”

난치병 어린이 위한 성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지난 19일 재단 프로그램실에서 ‘제14회 국내외 장애인·난치병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복지재단은 이날 행사를 갖고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행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인 1억1300여만원의 기금을 병원법당과 교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추천 받은 환아 35명에게 전달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이 참석한 기금 전달식은 환우 대표로 민수빈(16세) 양이 참석했다. 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민 양은 뇌병변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며, 어머니와 동생도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원경스님은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반

가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명스님은 “불교의 역할은 사회의 아픔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더욱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민 양에게 단주를 선물했다.

1억원이 넘는 기금 마련까지 몇몇 어린이집은 바자회를 통해 동참했으며, 불자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찰, 일반인의 동참도 줄을 이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참가해 108만원의 기금을 모아 준 가정,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의 동참 등이 결실을 이뤄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5명의 국내 난치병어린이 지원과 함께 라오스 지역의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 및 수술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익수 기자 jashn@ibulgyo.com

“세월호 희생자 위해 정성 모아”

동화사 성금 1000만원
‘아름다운동행’에 전달

동화사가 세월호 희생자 피해 지원을 위해 정성을 보냈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덕문스님·사진)는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동화사와 파계사 신도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이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성을 모아 기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총림이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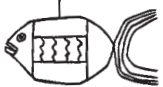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화사 주지 덕문스님은 “신도들이 정성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화합해서 총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6월18일 중무회의)							
정공스님 용인 백령사	응일스님 천안 안양암	상인스님 육전 보문사	종현스님 서울 경불사	선현스님 부산 정원사	정완스님 순천 흥선사	성관스님 수원 수원사	자원스님 화성 흥불사
해조스님 강릉 관음사	선조스님 당진 정토사	해신스님 영천 거동사	등운스님 안동 석수암	혜수스님 목포 관음사	원공스님 정읍 정토사	현우스님 문경 관음사	

2014 여름방학 어린이청소년

지장사 한문학당 모집



한문도 배우고 친구도 만나고 여름 숲길을 걷자
경북 김천에 자리한 지장사에서 ‘지장사 한문학당’ 여러분의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교육 / 공동체 교육

가족, 친구 등 자신의 주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며, 자연속에서 닫혀있는 마음과 감각을 열수 있도록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며 사랑, 협동, 삶을 느끼게 한다. 한문교육, 문화체험, 공동체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배우게 된다.

교육 내용

- 매년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7박 8일간 합숙
- 인성교육, 생활예절, 정신수양을 위해 한문교육, 서예교육, 문화 체험, 생활예절, 발우공양, 참선, 명상, 다도교육, 산행
- 차 문화체험, 전통놀이, 108염주 만들기, 성지순례

일시

1차 2014년 7월 23일 (수) ~ 7월 30일 (수) (7박8일)
2차 2014년 8월 2일 (토) ~ 8월 9일 (토) (7박8일)

접수기간

7월 20일까지(합격자발표 : 신청 5일 이내에 개별발표)

대상

초등학교 2학년 ~ 중 3학년 20명 (수련자 우선)

참가비

36만원 (농협 20141108-09 예금주 : 지장사)

접수방법

- ① 지장사홈페이지(www.jijangsa.net) 수련회→한문학당→참가신청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접수
 - ②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jijangsa@hanmail.net 이나 팩스로 접수
- 전화 054-432-1189, 팩스 054-432-1186

문의

경북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 627

☎대한불교조계종 백마산 지장사

나를 찾아 떠나는 길

한글소설이

여름수련회

불교신문 광고 접수받습니다

- 충청지사 이시영 010-5423-7101
- 경남지사 권순학 010-2126-0118
- 대구·경북지사 박광호 011-502-0272
- 광주·전남지사 이준엽 010-9692-3536
- 전북지사 진재훈 010-6473-1892

광고 문의 : 02)730-4490
Fax : 02)730-4487
www.ibulgyo.com

